

대박 or 쪽박... '라인' 잘 봐야 돼!

연대 파악이 우선...베팅의 중요 변수
팀별·학연별·기수별 등 다양한 조합
협공 깨지면 고배당 터져...양날의 검



선두 뒤를 바짝 붙은 채 벨로드롬 트랙을 질주하는 경륜선수들. 같은 팀 소속 선수들이 한 경주에 여러 명 편성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팀별, 학연별, 기수별 연대플레이가 활발해졌지만, 강축의 단독 플레이를 나서는 경우를 주의해야 한다.

내 식구를 챙기는 데 성공하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결과가 생기지만 반대로 성적에 대한 지나친 강박관념에 때문에 일반의 예상과 달리 연대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협공 예측 깨지면서 102.8배 고배당

5일 광명 특선5경주의 임치형(23기, 29세)은 세종팀 동기이자 고교 후배 정태양(23기, 28세), 팀 동료이자 고교 선배 황준하(22기, 30세)와 같이 레이스에 편성됐다. 팬들의 집중 관심을 받은 임치형과 정태양은 그 결과로 최저배당을 형성했다.

경주가 시작되자 정태양은 예상대로 임치형을 뒤에 붙이고 과감한 선행 승부수를 띄웠다. 하지만 줄서기 과정에서 종합득점 우위인 동서울팀 조영환(22기, 34세)을 넣어주면서 추임을 허용해 쌍복승 40.4배의 고배당이 만들어졌다. 이 경주에서 황준하는 4착, 정태양은 6착에 그쳤다.

같은 날 특선 결승 6경주에서는 정종진(20기, 34세)이 김포팀 선배인 정재원(19기, 35세), 후배 정정교(21기, 31세) 등과 출발선에 섰다. 하지만 정종진은 연대 없이 후미에 같은 슈퍼특선인 동서

울팀의 정하늘(21기, 31세)을 붙이고, 앞에는 동서울팀 정해민(22기, 31세)을 두고 경주한 끝에 우승해 실리 위주의 경주를 펼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보다 앞선 8월 29일 광명 우수1경주에서는 청평팀의 임경수(24기, 29세)를 중심으로 강급자 최대용(15기, 39세), 동료 최근영(19기, 39세)이 협공을 통한 동반입상이 예상되어 최저배당을 형성했다. 하지만 경주 결과는 박종현(6기, 53세)이 세종팀 후배 하동혁(11기, 41세)을 붙이고 쫓아기를 통해 우승해 쌍승 102.8배가 나왔다.

창원에서 5일 선발 결승 3경주에서 세 명의 신인 강자들이 등장했지만 고교 선후배 관계인 이진원(25기, 31세), 함동주(10기, 39세)가 함께 입상하며 쌍승 8.4배를 기록했다. 이진원은 이 경주 이후 우수급으로 처음 특별승급했다.

박정우 경륜위너스 예상부장은 "강축들로선 연대 플레이에 집착하는 무리한 경기운영을 하다가 우승을 놓칠 경우 아무 의미가 없다"며 "그래서 평소에는 친분 선수를 챙기다가도 큰 경기에서는 자신의 우승만 생각하며 혼자 싸우는 것이 편할 수 있다. 따라서 강축들이 부담을 가질 수 있는 연대 플레이는 '양날을 가진 칼'과 같다"라고 평가했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경주사업총괄본부, 광명스피돔 청렴콘서트 개최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 경주사업총괄본부는 8일 광명스피돔에서 청렴콘서트(사진)를 개최했다.

경륜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렴교육과 연계해 진행됐다. 갑질 근절을 위한 청렴 영상 시청, 조직문화 개선 추진 과제, 부패취약분야 분석사항 공유 등 청렴한 조직문화에 대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했다. 공단이 사전에 직원들을 대상으로 무기명으로 실시한 '청렴한 조직을 위해 개선해야 할 사항' 등 설문조사를 통해 모은 의견과 질문을 직원별 대표직원들이 총괄본부장에게 질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경주사업총괄본부장은 "공공기관이 사업을 추진하는 근간은 청렴이 기반이 되어야 하고 우리 스스로의 실천이 중요하다"며 "청렴콘서트를 계기로 구시대적인 관행을 타파하고 변화와 혁신을 통해 조직이 발전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경정 소개항주, 기록만 보지 말고 정비력·훈련 내용 분석

기록 빨라져 숫자만 보고 판단 위험
확정검사는 시속 변화 체크가 필수

경정 경주 추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개항주(경기시작 전 선수의 기량과 모터의 성능을 보여주지 위해 경주수면을 전속력으로 도는 것) 기록이 점차 빨라지고 있다. 경정 모터는 보트 외부에 장착되어 있는데 최근 기온과 수온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최상급에 속하는 모터를 배정받기도 하요일 확정검사와 경주 당일 소개항주 기록이 경쟁 상대에 비해 앞서지 않으면 선수와 모터의 궁합이 맞지 않거나 전반적인 세팅이 좋지 않은지 의심하게 된다. 다른 조건이 좋아도 입

상 후보로 고려하는 데에 불안해진다. 반대로 착순점이 그다지 높지 않은 모터를 배정받았지만 상급 모터 못지않은 빠른 소개항주 기록을 냈다면 본 편성에서 공격적으로 승부수를 띄우는 것인 지 기대를 갖게 된다.

확정검사와 소개항주는 각기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 확정검사는 화요일 오전 미사리 경쟁장에 입소한 선수들이 미리 직접 뺨은 모터와 보트를 배정받아 지정훈련을 통해 시합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점검하는 과정의 모터 기록이다. 1턴 마크 선화 후 메인 전광판 중간 지점부터 2턴 마크까지 150m의 직선거리를 활주한 기록으로 현재 1차와 2차 연습 기록을 경정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홈페이지의 확정검사 코너에서 화요일 1,

2차 확정검사 기록과 2차 온라인 연습 기록도 함께 게시하고 있다. 여기에 수요일과 목요일 오전 훈련의 확정검사 기록도 매주 업데이트해 시속 변화를 체크한다면 입상 가능성 여부를 가늠할 수 있다.

확정검사가 실전을 위한 담금질의 시간이라고 한다면 소개항주는 선수가 출전 직전, 현재의 모터 상태를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이다. 운영 방식은 확정검사와 같은데 기록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 화요일의 기상 조건과 경주 당일 환경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선수가 배정받은 모터와 잘 맞다면 별다른 정비 없이 그대로 나서겠지만 부족한 점이 보이면 여러 점을 세팅 과정에서 보완

해 기력을 끌어올리려는 노력을 한다.

그래서 수요일경주에서 정비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입상 후보에서 성급하게 제외할 필요가 없다. 목요일경주에서 얼마든지 호전세를 보일 수 있어 마지막 출전까지 꼼꼼하게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선수가 상황에 따라 극단적으로 세팅의 변화를 주는 경우도 있다. 선풍력에 자신이 있는 선수는 스타트 승부를 염두에 두고 가속력을 극대화하는 세팅을 하기도 한다. 반대로 가속력이 떨어지면 순발력을 최대한 살리기도 한다. 소개항주 기록은 다소 늦지만 전속 턴을 통해 위기를 탈출할 수도 있다.

경정 예상전문가는 "소개항주 기록을 체크할 때 기본적인 모터 성능은 물론 선수 정비력까지 염두에 두고 지정훈련 내용까지 꼼꼼하게 비교해 경주 추리에 나선다면 육석을 가려낼 수 있겠다"고 조언했다.

이승진 기자 sujin22@donga.com

경륜·경정, 추석 명절 맞아 소외계층에 기부

국민체육진흥공단 경주사업총괄본부는 추석을 맞아 광명시와 하남시 사회복지협의회, 하남시장에인복지관을 통해 관내 소외계층에게 기부금을 전달한다. 기부금은 9200만 원이며 광명시 경로당 60개소, 지역아동센터 31개소, 다문화가정과 저소득·소외계층 600명, 하남시 장애인가정 120가구, 복지시설과 푸드뱅크 이용자 1000명 등을 지원한다. 지원물품은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마스크,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과 생필품, 음식, 코로나블루 극복을 위한 스포츠용품 등이며 소상공인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 상품권도 있다. 공단 관계자는 "광명시와 하남시 그리고 15개 장외지점 등 해당 관내 지역사회와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화소식 무릎이 불편해서 고생하시는 분~

- ▶며칠 차고있어 보니 무릎이 부드럽고 이렇게 좋을수가!!
- ▶설명이 필요없다 무조건 2,3일만 착용해보면 느낀다!

名作
名品



착용해보니 그것 참 신통하구나!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일상에서 흔히 겪는 일들 중 무릎이 불편하면 의사 의욕이 떨어지고 귀찮아진다.

사람은 일생동안 무릎이 편안하면 콧노래가 절로 나온다. 많은 시간을 서서 생활하므로 체중이 아래로 집중되어 무릎에 무리가 오게 되는데 특히 비만인 경우엔, 다리를 많이 쓰거나, 나이가 들어 노화현상으로 무릎에 대사가 나빠지면 활동하기가 어려워진다. 건강한 다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이고 건강한 식단, 체중조절이 중요하

며 걷기, 스트레칭, 수영 등 다리에 무리가 가지않는 운동을 꾸준히 해주는 것이 좋다.

최근 불편한 무릎을 보호해줄 수 있는 생체(生體)에너지 무릎밴드 참 무릎파켄이 출시되어 무릎이 불편한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고 있는데 천연광물질에서 다량의 파장이 방사 및 방출되는 무릎파켄은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제품이다.

무릎파켄에는 4가지 광물(젤라이트, 그라파이트, 철보석, 의료용 자석)이 침착되어 있으며 그중 그라파이트는 발열소재인 탄소분자를 고온에서 1000배 이상 팽창시킨 물질로 열전도성이 구리의 200배, 빛의 30배에 활동에너지는 300배나 되는 고가의 신소재이다.

어렵고, 힘들고, 불편한 무릎에 착용하여 생활해보시면 시원하고 가뿐해짐을 느낄 것이며 가볍고 컴팩트하기 때문에 겹옷 속에 차고있으면 표시가 나지않고 활동성이 좋아 누구나 일상생활 중에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사용해 보면 정말 만족하실 것이고 이곳저곳 소문 많이 내주세요~

불만족시 무조건 반품하세요!!

불편한 무릎을 위하여~
상담문의: 무릎파켄
1670-5467

현대용 허리가 불편해 고생하시는 분~

- ▶허리건강 비밀은 '허리를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다
- ▶며칠 착용해보니 그것 참 좋구나!

전기가 필요없는 허리조아의 놀라운 성능

제품명: 허리조아 제조/편마임:솔원
재질:갈이:대,중,소
두께:5mm/무게:210g
제품용도:불편한 허리에 착용
제품특징:가볍고 반영구적
온발력 가능
제조국: Made in Korea

착용해보시고 확인하세요!



名作
名品

몸이 차가워지면 몸과 마음 그리고 매사의 의욕이 사라지는데 몸이 차가워지면 생기는 현상을 바로잡아 주는데 필요한 것이 허리가 편하면 만사가 편하다! 몸이 냉기가 쌓이면서부터 발생하는 것

이 많다. 우리 조상들은 몸이 무겁고 기운이 없으면 아궁이에 군불을 지피고 아랫목에서 한숨 쉰 후 다시 일어나 온몸이 가뿐해지는 것을 알았는데 바로 그것이 원적외선 점질 효과 때문이었던 것이다. 최근 허리를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허리조아 발열벨트가 출시되어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

전기 없이 스스로 피부와의 열교환으로 발열되는 허리조아 발열벨트는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4가지 천연광물에서 나오는 파장이 다량 방사 및 방출되는 제품이다. 허리조아 발열벨트는 4가지 광물(젤라이트, 그라파이트, 철보석, 의료자석 등) 중 그라파이트라는 신소재는 천연발열소재인 탄소분자를 고온에서 1000배이상 팽창시킨 물질이며 열전도성이 구리의 200배, 빛보다 30배, 활동에너지는 300배나 되며 허리부위를 전기없이 따뜻하게 유지시켜주는 물질이며 불편한 허리를 따뜻하게 보호하고 배에 힘이 들어가도록 밝혀 줄 것이다. 또한 가볍기 때문에 겹옷속에 차고있으면 표시가 나지않게 착용할 수 있어 누구나 일상생활 중에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불편한 허리를 보호해주는~

상담문의: 허리조아
1600-1047